

KIA '투수 놀음' 시험대



'4일턴' 황동하·워밍업 끝낸 알드레드 KT전 선발 치열한 순위 싸움 속 본격 무더위 전 승수 쌓아야

KIA 타이거즈가 '마운드가 경쟁력'을 시험받는다. SSG와 주중 3연전을 치른 KIA는 수원으로 건너가 KT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윤영철-알드레드-황동하가 선발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두산과의 연장승부에서 끝내기 패를 당하면서 1위 질주를 마감한 KIA는 지난 12일 SSG전에서 화끈한 화력으로 13-7 승리를 거두고 선두 탈환에 성공했다. 이날 1-3위팀이 모두 바뀌기도 하는 등 상위권에 치열한 순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KIA는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아놓아야 한다. 역시 승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발'이다. 이의리와 윌 크로우의 등반 부상으로 선발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KIA는 팔꿈치 인대 수술로 두 선수의 시즌 아웃이 확정되면서 판을 새로 짰다. 앞서 이의리의 부상으로 기회를 잡았던 황동하가 자리를 굳혔고, 크로우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영입한 캡 알드레드도 워밍업을 끝내고 지난 8일 두산전에서 첫선을 보였다. KIA의 강점에서 약점이 됐던 선발진이 새로 갖춰졌지만 고민은 남아있다. 두 선수의 이닝이 KIA 1위 싸움의 중요한 전력이 될 전망이다. 프로 2년 차였던 지난해 데뷔전을 치른 황동하는 13경기에 나와 31.1이닝을 던졌다. 올 시즌에는 처음 3경기를 볼펜에서 소화한 뒤 8경기는 선발로 출격해 43이닝을 책임졌다. 빠르고 과감한 승부로 선발 경쟁에서 승자가 된 황동하는 프로 첫 4일턴을 앞두고 있다. 화요일이었던 지난 11일 SSG를 상대로 황동하는 일요일인

16일 KT전까지 연달아 등판한다. 처음 1주일에 두 차례 선발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 앞선 등판 성적도 좋지 못했다. 이 경기 전까지 최근 6경기에서 황동하는 5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선발 역할을 완수했다. 하지만 앞선 SSG전에서는 4.1이닝 7피안타(1피홈런) 2사사구 3탈삼진 4실점에 그쳤다. 처음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있는 황동하는 상대의 집요한 분석과 더위까지 동시에 싸워야 하는 '시험무대'에 오르게 된다. 알드레드의 손끝에도 많은 게 달려있다. 지난 2년 외국인 투수 고민을 이어갔던 KIA는 올 시즌 크로우와 제임스 네일모 선발진을 구성해 마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 크로우는 8경기에 나와 5승을 기록하면서 KIA의 초반 1위 싸움에 힘을 보탤다. 뛰어난 진화력으로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면서 KIA 전력의 한 축이 됐지만 팔꿈치 수술로 시즌을 일찍 마감했다. 객관적인 성적이나 이력도 크로우가 앞선다. 포 캠프 때부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왔던 크로우와 달리 알드레드는 타자들과 싸우면서 리그 적응도 해야 하는 만큼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큰 게 사실이다. 알드레드는 KBO리그 첫 등판에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피칭을 선보였다. 알드레드는 8일 두산 원정에서 1회 양의지에게 우전안타는 맞았지만 라모스와 김재환을 상대로 두 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다. 양석환-김기연-김재호를 상대로 2회는 삼자범퇴, 탈삼진도 추가했다. 알드레드가 자신 있다고 강조했던 스윙퍼 등 위력적인 변화구를 선보이면서 기대감을 키웠던 1-2회였다. 하지만 5-0으로 앞선 3회 1실점을 한 알드레드는 4회에도 마운드에 올랐지만 아웃카운트를 더하지 못했다. 알드레드는 양석환에게 좌전안타



KIA 황동하가 11일 SSG전에 이어 16일 KT전에 출격해 처음 4일턴을 소화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를 맞은 뒤 연속 볼넷으로 만루 위기를 자초했다. 이어 이우찬, 조수행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이날 등판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임기영이 알드레드의 책임 주자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알드레드의 KBO리그

데뷔전 성적은 3이닝 6피안타 3볼넷 4탈삼진 6실점이 됐다. KIA는 올 시즌 화끈한 방망이를 앞세워 1위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타선기 기록을 보이면서 경기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안정적인 우승 질주

를 위해서는 결국 '투수 놀음'을 해야 한다. 황동하와 알드레드가 안정된 피칭으로 선발진을 지켜주는 게 KIA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김천상무에 설욕하고 연습 간다"

15일 K리그1 17라운드 홈경기... '측면싸움'이 승패 좌우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광주FC가 본격적인 순위 싸움을 예고했다. 광주는 15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김천 상무를 상대로 1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의 설욕전이다. 앞서 광주는 지난 4월 6일 진행된 김천과의 원정경기에서 상대의 자책골로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정지훈에게 연달아 골을 허용하면서 1-2 역전패를 당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캡틴' 안영규가 후반 33분 태클을 하다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 약재도 발생했다. 이 경기에서 4연패를 당한 광주는 이후 6연패에 빠지면서 최악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반면 광주를 제물 삼은 김천은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면서 2위(8승 6무 2패·승점 30)에 자리하고 있다. 설욕전을 준비하는 광주의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A매치 휴식기에 앞서 치른 16라운드 FC 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이정호 감독이 "상위권 경쟁을 펼칠 계기를 만든

승리였다"고 자평할 정도로 '승점 3' 이상의 가치가 있는 승리였다. 광주는 좋은 분위기에서 재정비 시간을 보냈다. 팀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리그와 대표팀 경기를 병행하며 강행군을 펼쳤던 정지훈, 엄지성, 변준수 등에게 이번 A매치 휴식기는 보약 같은 시간이 됐다. 시즌 전 기대를 모았던 외국인 선수들도 위협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브라질 듀오' 가브리엘과 빅토, '조지아 특급' 배카가 광주의 색에 맞춰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고 부지런히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광주는 휴식기 동안 호남대와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감각을 조율하고 전력 구상도 마쳤다. 이 경기에서 센터백 듀오 포포비치와 브루노가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하반기 기대감을 키웠다. 아직 시즌을 열지 못한 신창무, 정지훈 등도 공수 양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눈도장을 찍었다. '측면싸움'이 이번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광주는 앞선 김천 원정에서 정지훈과 김대원 등 상대의 빠른 원어들들 막지 못하면서 힘든 경기를 펼쳤다. 교체 투입됐던 광주 원어 정지훈은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문책성 재교체를 당하는 등 '측면싸움'에서 완패했다. 엄지성, 김한길, 이영민이 김천상무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김천전에서 고개를 숙였던 정지훈도 설욕을 준비하고 있다. 앞선 대결과는 다른 김천상무의 팀 상황은 광주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김천상무의 주축을 이뤘던 7기 선수들이 '말년 휴가'를 떠나면서 김진규, 김동현, 원주재로 이뤄진 리그 정상급 미드필드진이 자리를 비웠다. 상반기 김천상무의 공격을 주도했던 김현욱, 이영준 등도 전역을 앞두고 있다. 울산 공격의 핵심이었던 이동경과 함께 이동준, 맹성용 등이 입대했지만 군사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팀에 합류하면서 조직력에서도 몸뚱이가 남아있다. 광주의 올 시즌 성적은 6승 1무 9패(승점 16), 7위. 광주가 A매치 휴식기를 타당포인트 삼아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천상무를 상대로 연습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은퇴 시기 고민 메시 "기록 연장 위해 뛰지는 않을 것"

8차례 발롱도르 수상에 빛나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6·아르헨티나·사진)가 현역 은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냈다. 당장 그라운드를 떠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기록 연장'을 위해 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메시는 13일 ESPN 아르헨티나와의 인터뷰에서 "(현 소속팀인) 인터 마이애미가 나의 마지막 클럽이 될 것"이라며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메시는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와 함께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를 이루며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그의 은퇴 시기에 팬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메시는 이에 대해 "나는 축구를 좋아하고 매일 훈련을 즐기고 있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하다"라며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즐기고 팀에서 잘 지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스페인 명가' 바르셀로나에서 프리메라리가 데뷔전을 치른 메시는 17시즌 동안 바르셀로나의 최고 스타로 맹활약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778경기에 출전해 672골을 쏟아냈다. 이후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해 2시즌 동안 32골 35도움을 작성했고, 지난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하며 '축구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즐기고 있다. 메시가 지금까지 들어 올린 우승 트로피만 40개에 이른다. 은퇴 시기를 놓고 고민이 깊어진 메시는 "나는 평생 축구를 했다. 매일 연습하는 것을 즐긴다. 시간이 많이 남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고 있다"며 "축구를 그만두면 더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즐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메시는 2년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5차례(2006·2010·2014·2018·2022년) 월드컵 무대에서 26경기를 뛰며 '역대 월드컵 최다 경기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면 메시는 역대 최다인 6차례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된다. 메시는 이에 대해 "단지 기록을 세우려고 월드컵에 출전하려 하지는 않는다. 기록을 유지하고 늘려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6회 출전'만을 위해 월드컵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가 관리를 잘하면 모든 게 이뤄질 수 있지만 월드컵 출전 기록만을 위해 그곳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고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 월드컵 출전의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고3' 김영범 전국수영 접영 100m 한국신

김영범(18·강원체고·사진)이 남자 접영 100m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김영범은 13일 광주 남부대시립극제수영장에서 열린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경연 남자 고등부 접영 100m 예선에서 51초72에 터치 패드를 찍었다. 지난해 10월 18일 전국체전 남자 일반부 결승에서 양재훈(강원도청)이 작성한 51초85를 0.13초 단축한 한국 신기록이다. 2023년 전국체전 고등부 결승에서 김영범은 51초97로, 황선우(강원도청)가 2022년 11월에 세운 51초99를 경신하며 한국 기록의 주인공이 됐지만, 약 5분 뒤에 양재훈에게 '한국 기록 보유자'라는 타이틀을 넘겨줬다. 이후 김영범은 8개월 만에 양재훈의 종전 한국 기록을 넘어섰다.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불발의 아쉬움도 이번 한국 기록 달성으로 달랠다. 지난 3월 열린 2024 대표선발전 남자 접영 100m에서 김영범은 김지훈(대전시청)에게 밀려 파리 올림픽 남자 혼계영 400m 접영 영자로 출전할 기회를 놓쳤다. 김영범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할 때 부담감도 크고, 그만큼 절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 경기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후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했다"며 "다음 목표는 강용환, 홍순보 코치님과 약속한 대로 올해 전국체전에서 50초대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신기록을 세운 김영범은 포상금 100만 원과 왓슨앰컴퍼니에서 제공하는 맨틀 헬스케어 기기를 받았다. /연합뉴스

